

광주시의회, '내란 옹호'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자동폐기

의장단·상임위 연석회의서 협의... 시민사회단체 '극우' 비판 수용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안(6월27일자 광주일보 5면)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자동폐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지난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 폐기하기로 협의했다.

3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자동폐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신속정 광주시의회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이 극우논란이 일고 있다는 단체라는 점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일 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성명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박수기·박필순 광주시의원들은 개인 페이스북에 사죄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수기 시의원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으로 '5·18 광주정신을 짓밟았다'는 시민사회의 질책을 깊이 반성하고 단일한 판단과 역사 인식을 뼈저리게 성찰하겠다"면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례안 의결보류 및 철회' 절차를 밟겠다"고 글을 올렸다.

박필순 시의원도 "발의 과정에서 단일하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부끄럽다"면서 "이번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의원들께 조례안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조례안 의결 보류를 건의하는 등 늦게라도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 육성과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용임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을·임미란 광주시의원들과 무소속 심창욱 광주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주 우치동물원, 호남권 거점 동물원 지정

5년간 16억 국비 지원...30여개 동물원 동물치료 전담

광주시 '우치동물원'이 전국에서 2번째로 거점(호남권)동물원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30일자로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을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5월 중부권에 청주동물원이 지정된 이후 2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거점동물원'은 각 권역 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5년간 1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호남권에 있는 30여개의 동물원의 동물치료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우치동물원은 올해 6월 16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1971년 사적공원 동물원으로 시작해 1992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우치동물원은 올해 6월 기준 12만1302㎡부지에 89종의 668개체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사자, 시베리아호랑이, 얼룩말, 사막여우, 코끼리, 기린 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까지 34명의 인력(운영·관리11명, 사육·복지13명, 시설·저장 6명, 수의 4명)이 관리하고 있다.



광주우치동물원 소속 의료진이 지난 3월 6일 제주 동물원의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팔 분쇄골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우치동물원은 우수한 수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우치동물원 수술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제주에 소재한 동물원 화조원의 의뢰를 받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팔 분쇄골절 수술도 성공했다.

이에 환경부는 우치동물원의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고려해 호남권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호남권 거점동물원 지정에 이어 향후 수도권, 영남권도 거점동물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尹 내란 특검 실제 조사 5시간 5분 뿐... 오늘 재소환 통보

첫 대면조사 마치고 귀가 15시간 머물렀지만 의견 충돌 윤 측, 2차 출석기일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횡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

사를 빠져나왔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채포영상 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에게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채포 방해 및 비화포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

고,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께부터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나오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외로운 반려동물...하루 6시간 집에 혼자 남겨져

한국인 10명 가운데 3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반려동물들은 날마다 평균 6시간 정도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공개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현재 반려동물을 둔 가구는 591만 가구로 2023년 말(585만 가구)보다 1.1%(6만 가구) 늘었다. 개인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한국인은

1546만명으로, 총인구의 29.9%에 이르렀다.

455만 가구가 개, 137만 가구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전년보다 각 4만 가구, 2만 가구 증가했다.

반려동물 가구의 80.1%는 하루 중 잠시라도 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에 이르렀다.

이들 가구가 반려동물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평균 19만4000원 정도로, 2023년 조사 당시(15만4000원)와 비교해 4만원(26%)이나 늘었다.

동물 종류별로는 반려견을 둔 가구가 월 16만 1000원, 반려묘를 둔 가구는 월 14만2000원을 썼다.

반려동물 양육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35.1%)였고, 이어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2.5%)·배변패드 등 일용품(10.6%)·미용비(8.7%) 순이었다. /연합뉴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 5. 28.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025. 7. 28까지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30일
주식회사 프레온
여수시 좌수영로 683-17(봉계동)
대표이사 백철우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05월 21일 총사원의 동의로 인한 해산을 결의하고 2025년 05월 22일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30일
유한회사 청림건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42
청산인 김준경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중 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